

성신강림 대축일

기도서 309면 (C해)

제1독서 : 사도 2, 1-11

제2독서 : I고린 12, 3b-7. 12-13

복음 : 요한 20, 19-23

숲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요한 20, 23).

□ 강론



다시, 성령의 불을!

박 중 신 신부

눈을 비비고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쏟아지는 찬란한 아침햇살, 5월의 신록은 저토록 푸르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찌해서 이처럼 무겁기만 할까요? 명상가인 에르네스토 카르테날 사제는 “자연은 모두 다 사랑이다. 하느님의 사랑이 사방에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기의 압력을 느끼지 못하듯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와 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하느님이 창조한 세계를 인간은 계속 파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사는 한국사회 전체가 부정과 부조리에 뒤덮여 있고 또 신문을 들여다보면 기쁜 소식은 고사하고 치미는 분노와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창조에 부합하는 응답은 커녕 정반대의 길로 출발음치고 있으니!?

그러기에 우리 교회에서 벌이는 성령쇄신운동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간 길”을 돌아서서 “하느님의 길”로 들어서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 이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쇄신운동을 말하면 무슨 괴이한 신심행위나 되는 것처럼 처음부터 거부감을 표시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그것은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 더러워지면 세탁을 해야 하고, 몸이 더러워지면 목욕을 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때묻고 더러워지면 생명을 주신 성령께로 돌아가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할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성령운동을 유독 지금 이 시대에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고있는 상황과 역사적 현실이 죄악과 불의의 구렁텅이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태도는 진정으로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것인지? 입으로는 하느님이 주인이라면서 실제로는 돈, 명예, 권력 따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것을 쫓아 전진공공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각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기를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번 우리 전주교구가 5월 27일 「대성령쇄신대회」를 개최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아일린 조지 여사를 지도자로 모시고, 오랜만에 가슴을 열고 참 생명이신 성령의 소리를 듣자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의 부름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나의 길은 너희 길과 같지 않다.” 야훼의 말씀이시다. “하늘이 땅에서 아득하듯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이사야 55 : 8~9) (효자동 주임신부)



개소리

보신탕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 개소리(개에 관한 말)를 많이 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보신탕에 대한 당국의 정책이 어떠하든,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만 되면 개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무어라고 해도, 어느 외국인 사제의 표현처럼, 보신탕은 한국인의 「여름국」인 것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음식문화인 것이다.

「조지 솔즈」가 화제꺼리를 뿌리고 갔다. 어쩌면 우리네 발음처럼 「솔취」한 사람마냥 처신했다는 표현이 옳을지도 모른다. 초대한 손님들 기다리게 하고, 남의 나라 장관실에 개를 데리고 들어가는 무례를 범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정치문제에 대해서도 경솔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남의 나라 장관실을 헤집고 다니는 솔즈의 개를 생각하면 우리네 개는 참으로 버드장머리없는 사람보다도 낫다.

필리핀은 우리보다는 한 수 위인 성 싶다. 그들이 의연하게 솔즈네 개를 저지시킨 것을 보면 그러하다. 왜 우리는 그러하지 못했는가! 온통 나라망신을 당한 것같이 부끄럽기도 하고,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분노가 있다. 보신탕 문제만 해도 그렇다. 보신탕이 혐오식품이라면, 결국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다는 말인가! 울림찍을 물고 늘어지는 몇몇 외국인들의 입방아에 그만 주체성이 흔들리다니... 도시에서의 보신탕 단속과 솔즈네 개, 아마 개 때문에 당하는 2대 개망신이라.

하루 종일 벌어야 보신탕 한 그릇값도 못버는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발표했다. 진주의 백양삼유(現 대양실업), 군산의 세동합판(舊 한국합판), 경성고무 전주공장의 경우가 그렇다고 한다. 한 나라의 산업전사들에게 보신탕 한 그릇도 못사주는 처지에 쫓아내기까지 하는 회사들, 어디 좀 지켜 보자.

숲정이 산책



눈물만.....

□성신강림대축일

성령강림 날에

안 특 수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다. 성령운동이니, 성령기도회니 길으로는 성령의 홍수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각자의 맘속에 과연 성령께서 역동(力動)하고 계시지 살펴본다면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신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줄로 믿는다.

오늘은 참으로 기쁨으로 맞이하여야 할 성신강림 날이면서도 성령의 특징인 평화롭고 자유로운 마음과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다같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 안주(安住)속에서 느끼는 즐거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주님의 불리움속에서, 주님을 향한 바쁜 생활속에서 열렬한 기도속에서 느낄 수 있는 평화라고 한다. 어느날 내가 회친차 병실을 돌면서 한구석 병상에서 시련과 절망속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발견하였다. 16세의 소녀로서 이 세상의 냉랭함과 가난속에서 이래로 더 살아보았자 뻔한 자기 인생을 애견하고 극약을 먹은 것이다. 이야기를 청하여도 표정도 대꾸도 없이 오직 죽음만을 바라보는 소녀였다. 또 몇년간을 나의 진찰실을 드나드나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 어느 환자, 실제 큰 병은 없으나 내가 병이 없다고 하면 곧 자살이라도 할 정도로 고통스런 신경증환자, 생활고와 가정이 찢기고 할키운 환경속에서 헤어나가지나 특수 인간이 아니고서는 병이 안날 도리가 없는 죽은한 여인, 또 임종을 맞으며 숨을 몰아쉬면서 사람으로서는 감내하

기 어려운 고통을 맞는 분들께 한번 복음의 말씀을 권해 보았다.

이러한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안겨주었더니 아까 그 소녀는 재수술을 3번 하고도 약착같이 살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놀라운 용기와 희망과 기쁨, 평화로 전환되었으며, 왜 이제사 그 좋은 것을 가르쳐주셨냐고 원망하면서 3년만에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마음에 평화를 되찾고 다시는 병원에 오지 않는 그 중년부인.

지긋지긋한 죽음의 고통의 행진속에 든끼와 인내로 참으며 임종을 평화로이 맞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절망속에 헤매는 사람의 맘속에 이것이 들어가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지 감탄할 뿐이다. 그분들의 맘속에서 역사하시며 또 우리들 바로 옆에 계시는 협조자, 빠라팔리도 성령계 한없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우리는 다같이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공부(Logos)→성령에 의한 말씀의 감동(Rhema)→그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생활속에서 지켜나가는 힘(Terreo)을 달라고 끈질기게 사らい신 주님께 매달린다면 그분께서는 틀림없이 뜨거운 성령의 체험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한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필립비 4:7).

(전주교구 성령봉사회 회장)

□성서교실 ㉠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 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요한 20:22)

요한복음 21장(章)은 부록이고, 20장(章)은 요한복음서의 마지막이다. 그도 그럴것이 20장 30~31절에 요한복음서의 목적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20장 1~29절은 요한복음서 본문(本文)의 마지막인 것이다. 19~23절은 10명의 제자들에게 대한 예수의 발언이다.

「숨을 내쉬시며...성령을 받아라」(요한 20:22). 예수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아라고 하셨다. 창세기에 의하면,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생기(生氣="니스마")를 불어 넣으셨다고 되어 있다(창세 2:7). 「야훼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창세 2:7). 여기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원문(原文)상으로는 「베혜쉬」이다. 사도 바오로에 의하면 「베혜쉬」는 「목숨만 이어가는 생명」(푸쉬케)에 불과한 것이다(고전 15:45). 인간은 이 「생명」(베혜쉬)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창세기에 보면 「동물」(창세 1:24)의 생명도 「베혜쉬」라고 했다. 인간에게는 여기에다가 「영(靈)의 생명」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하느님이 당신의 「니스마」(숨)를 불어 넣으셨더니, 제1 「아담」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이제 제2의 아담인 예수가 숨(「니스마」)을 내쉬시며, 여기에 첨부해서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인간의 제2 창조가 역사(役事)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인간은 사도 바오로가 말한대로 「영(靈)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靈)의 생명을 주는 생명」(고전 15:45)에 인간(푸쉬케)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구약의 하느님은 인간창조에 있어서 「니스마」(숨)를 불어 넣었더니, 사람(베혜쉬)가 되었다고만 했다면, 신약의 그리스도는 「니스마」(숨)를 불어넣고, 거기에서 「성령」(푸뉴마, 루아호)까지 받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니스마」와 「루아호」를 우리는 구별하는 입장이다.



직원 채용 공고

1. 인원 : 여자 ○명
 2. 자격 : 만21세미만 주산부기 2급이상 자격증소지자
 3. 제출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자격증 사본
 4. 접수마감 : 86. 5. 24.
 5. 접수처 : 당조합 총무과 (6-4559)
 6. 전형 : 서류심사후 개별면접
※ 접수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 전주 파티마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이 교 성

황수경 산부인과의원

자궁암 검사. 질 성형수술

여 의 사 황 수 경
산부인과전문의 황 수 경

이 승 열(엘리아)

울 진 주 2-7272

관통로 서울신탁은행건너면 끝무

교 구 소 식

- ☆ **축! 시종직·독서직 수여식** : 19일(월) 오전 10시, 장소-광주 가톨릭대학 상당 시종직 수여자-문성구(창인동), 김진룡(금암), 이동(전동), 김진화(금암), 박기준(장수), 이수현(황등) 6명
- 독서직 수여자-서정현(임실), 강한옥(부안), 주복성(전동), 정태준(효자동), 서석희(옥봉), 김영수(연지동), 이영우(남원), 정삼권(함열), 정성만(창인동), 박종택(황등), 최용준(임실), 11명**
1. **이리 기독교방송 가톨릭시간 안내** : 밤 12시30분, 금주 방송담당-김의철 신부님
 2. **사제 어머니모임** : 20일 오후 2시, 장소-강덕행신부님 어머니택
 3. **제13차 M·E 주말입소** : 23일~25일, 장소-광주 예수 고난회 명상의 집
 4. **3차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강습** : 방학중 학생들의 야영, 수련회 산간학교 등에 유용함. Camp(캠프) 레크리에이션 강습
일시-24일·25일·31일·6월 14일·21일 매일 오후 5시~7시
장소-가톨릭센터 강당, 접수-21일까지 교육국(5-0041), 참가비-8천원
 5. **'심성개발' 책자발간 및 판매** : 교육국에서 각 2천원씩
 6. **전국 가톨릭 내무공무원 1일피정** : 25일 오전 10시~오후 4시40분
장소-해성고등학교 강당, 회비-3천원(중식, 기념품 증정)
 7. **전주교구 성령쇄신대회** : 27일(화)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전주 실내체육관, 회비-1천원
 8. **1지구 어린이 야외대잔치** : 25일, 장소-덕진 왕능(부모님 참석 요망)
 9. **전주교구 교리교사 단합체육대회** : 6월6일 성십여교 운동장-각 본당 교사 참석바람
- 전화번호 안내** : 상지원 수녀원 전화신설 (0653) 6-5880
- 축! 영명 성 디디에(23일)** : 지정환 신부님 축하합니다

5지구(무·진·장) 사목회원 연수회 : 일시-18일 오후 2시, 장소-장계천주교회
대상-5지구(무·진·장) 본당 사목회원(분과위원장급)
주제-86년도 사목지침(가정·본당·교구공동체)
강사-김동준·문규현·김진소·김환철 신부

※ 가정기도 독서 : 시편 119 : 1-13 복음 : 마태오 6 : 25-34

잡 간 !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의사·약사로 구성된 중앙성당 다미안회(회장 : 고계상)에서는 뭔가 뜻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들이 모아져 지난 11일 동막공소에 무료진료를 했었다.

동막공소 신자들 비롯하여 인접주민 400여명을 진료했는데 처음 진료를 받는 사람, 진료가 시급했던 사람들을 대하면서 의사·약사로서의 소명을 다시 의식하게 되었다.

이번엔 내과·외과·치과·소아과만 했었으나 앞으로는 이비인후과·안과·산부인과 등 종합적으로 확대하고 정기적인 진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는 말씀을 생생하게 실감한 중앙성당 다미안회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고산본당에서는 쓸 수 없게 된 폐품을 모으기에 한창이다. 빈병, 헌책, 종이조각 등 폐품이 될만한 것은 전부 모으고 있는데, 성전진리를 위한 기금 뿐만 아니라 소비성향에 젖어 무엇이건 버리는데 습관이 되어버린 생활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시작한 것. 각 구역별로 공소별로 모으다가 한달치를 합쳐 고물상에다 팔았더니 20여만원이 나와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을 실감했다고-. 불과 두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폐품이 될만한 것은 버리지 않고 모으는 데 익숙해졌다.

사소한 것,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까지 눈을 뜨고 사는 고산본당 신자들의 생활의 지혜에 감탄하며 타본당으로도 번져갔으면.....



전주교구 성령쇄신대회

- *주제 : 성체와 가정 -하느님 아버지와의 만남-
- *날짜 : 1986년 5월 27일(화)
- *시간 : 오전 10시~오후 5시
- *장소 : 전주 실내체육관
- *초청강사 : 아일린 조지 여사
- *파견미사 : 박정일 주교님
- *회비 : 1,000원
- *준비물 : 점심·식수

■주최 : 전주교구 성령쇄신 봉사회

■후원 : 한국 가톨릭 성령쇄신 봉사자 위원회

연락처 : 75-3841
2-0915

전국 가톨릭 내무공무원 피정안내

1. 일시 : 86년 5월 25일 10시~오후 4시40분
 2. 장소 : 전주 해성 중·고등학교 강당
 3. 참석범위 : 내무부 산하기관에 재직중인 가톨릭 신자 공무원 전원
 4. 초청강사 : 김진소 신부(교회사 연구소), 이인복 교수(숙명여대)
 5. 파견미사 : 박정일 주교 6. 참가비 : 3,000원
- ※ 전라북도 로사리오 회원들은 전원 참석바람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용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기곤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인석

- 1. 금주는 성소주간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생활과 사제양성을 위해 함께 협조합니다
2.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사목회 상임위원회: 22일 저녁 8시 후 각 분과위원장님을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4. 신축기금 속히 납부합니다: 아직 신축기금 못내신 분들은 속히 납부하여 새성전 건립에 협조합니다
5. 공소회장단 회의: 20일 오후 3시, 황운리 공소에서
6. 성모의밤 행사: 인후아파트-30일 8시 본당-31일 8시
7. 교무금 납부의날: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8. 공소 순회미사: 24일 저녁 8시, 황운리공소
9. 금주전례: 해설-전병규, 독서및 봉헌-김용기 부부 신자기도-한갑용 부부, 촛불봉헌-김진석 부부
차주전례: 해설-김완준, 독서및 봉헌-조홍기 부부 신자기도-윤석연 부부, 촛불봉헌-최봉규 부부
10. M·E 야외웨딩: 공식미사 후, 모든 부부 참석 바람
□ 지난주 봉헌금: 576,380원 교무금: 226,000원 신축금: 39,00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주임신부 김기수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성원
수녀원 "

- 1. 사목회: 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2. 성모의밤: 29일 저녁 7시30분(단체별 꽃 화분 기도 봉헌, 개인별 조 봉헌) 전신자 참여하세요
3. 병자봉성체: 23일, 병자제신 가정에서는 사무실에 연락바랍니다
4. 유아세례: 24일 저녁 7시 사무실에 유아세례 신청 바람
5. 자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주일학교 자모님들 꼭 참석바랍니다
6. 어머니성가대 성가연습: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열심히 배웁시다
7. 엘리사벳 형제회 월례회(삼회): 25일 오후 2시
8. 대학생 정기총회: 오늘 오후 5시 대학생들 빠짐없이 참석 바람
9. 주일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3시 교리, 4시-어린이 미사,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교사 일동)
10. 주일학교 소풍(1지구 전체 어린이 큰잔치): 25일 덕진 왕능, 본당집결-오전 9시
11. 중·고학생회 소풍: 오늘 오전 9시 학생미사후 출발 꾸이지수지
12. 사순절 저금통: 2개 67,610원 누계-214개 1,186,386원 속히 내주세요
13. 금주 성당청소: 월-다위의탑pr, 토-셋별pr 차주 성당청소: 월-사도의모후pr 토-자비의모후pr
14. 금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최창기 ②김성원 봉헌-라병규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강만준 ②이주자 봉헌-오영열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68,750원 교무금: 475,35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상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이정우

- 1. 본당 꾸러실로 울뜨레아: 21일 저녁미사 후
2. 순정미 은인: 문병주-1주
3. 다음주일 어린이미사 없습니다: 덕진행사 관계로 (11시~오후 4시)
4. 성모의밤: 31일, 구역·단체 꽃봉헌 준비하세요
5. 성령쇄신대회: 27일 10시~오후 5시, 덕진.실내체육관, 점심 지참, 참가비-1천원

6. 사제관 및 강당 수리공사: 교우 여러분의 자진 신일 받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134,250원 교무금: 5,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갈택창
사무실 " 사목회장 김낙균
수녀원 2-2276

- 1. 제2성당 주일학교: 일요일 오후 1시에 어린이 교리가 있으니 부모님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2. 제2성당 예비자 교리반: 모집하고 있으니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3. 유아세례: 22일 오후 2시, 사무실에 신청바람
4. 성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5. 예비자교리: 학생-토 오후 6시, 일반-일 공식미사 후·화 오후 7시30분
6. 레지오 옥외행사: 장소-충남 영보리 연풍성지 일시-6월 17일 오전 6시30분(시간연수), 준비물-목주·도시락, 회비-5천원 대상-레지오단원 및 협조단원·평신자
7. 제2성당 사목협의회 조직 및 분과업무분장이 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장-김광환, 총무-함분권 선교분과-김화영, 전례분과-문치규, 재정분과-박병석, 교육분과-오수환, 사회복지분과-박병환, 여성분과-이복남, 자모회-최점자
8. 금주봉헌: 제2성당-박태호 부부, 본당-남정호부부 차주봉헌: 제2성당-박경환 부부, 본당-조정영부부
9. 차주전례 제 2성당: 해설-이복남, 독서-①박경환 ②오수환 본당 아침미사: 해설-최창림, 독서-①김배근 ②차상열 공식미사: 해설-남정호·김은경 독서-①이정빈 ②김낙균 저녁미사: 해설-진경선, 독서-①유명환 ②고현주
□ 지난주 봉헌금: 제2성당-116,030원, 본당-294,081원, 제-410,111원 교무금: 186,000원 미수금: 30,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치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최상범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병오

- ☆ 축! 영명: 김스피릿다 수녀님 공식미사 후, 축하식 있습니다
☆ 축! 첫영성체: 42명, 축하합니다
1. 성화회: 공식미사 후
2. 꼬미시움: 오늘 오후 2시
3. 울뜨레아·꾸리아: 다음주
4. 아치에스행사: 24일 오후 2시 전동본당 소속 전례지도단원 참석바랍니다
5. 피정: 유치원수녀님 (20일~6월20일) 많은 기도 바람
6. 청년연합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회장-이진홍, 부회장-강완석, 총무-오해경, 형제 자매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7. 감사: 성심상주변 나누심기에 협조해 주신분께 박경이·하경남
□ 지난주 봉헌금: 916,960원 교무금: 525,000원

(호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박종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정선
수녀원 2-4804

- 1. 본당의날 행사: 오늘 11시, 호자동우체국 뒷산
2. 첫영성체 교리: 20일~30일 오후 5시 대상-국민학교 3~6학년
3. 본당신부 사목방문: 20일-3단지 서편 4반 22일-3단지 동편 1반
4. 주부 성서대학: 목시록②, 21일 10시
5. 감사합니다: 익명-20만원
6. 사제관 전화번호 국변경: 75국→83국으로
7. 교구 성령쇄신대회: 27일, 전주 실내체육관 강사-아일린 조지 여사
□ 지난주 봉헌금: 556,930원 교무금: 641,000원